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3일 월요일 음 2월 5일 (12월)

백록담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0°C, 낮 최고기온은 16-19°C로 예상된다.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3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다소높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트럼프 “초토화” 위협, 이란 “더 심한 대응” 맞불

美, 호르무즈 개방 ‘최후통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22일째인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선 가운데, 이란은 더욱 파괴적인 수준의 보복을 예고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란의 집속탄 탑재 추정 미사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욱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란군 대변인은 22일 반공영 타스님통신을 통해 “이란은 이제 ‘눈에는 눈’ 원칙에서 나아가 군사 정책을 변경했으며,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은 “만약 적대국이 하나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여러 개의 시설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 덧붙였다.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한라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국장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남도한바퀴’로 이름 붙인 관광지 순환 버스에 오른 적이 있다. 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전라남도 구석구석 돌아보도록 각기 다른 코스로 짜여진 관광 상품이었다. 안내를 맡은 해설사는 버스가 이동하는 중간중간 그 지역에 자리 잡은 문화유산, 그곳이 배경이 된 문학 작품 이야기 등 남도의 매력을 풀어냈다.

이날 선택한 여정의 끄트머리쯤 들어 있던 운주사 와불은 탐방로 정비 공사 중임을 참가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아 다음을 기약해야 하

축제의 계절, 그 여름 연잎밥 같은 만남 있을까

는 등 아쉬움이 컸지만 그걸 빼면 기대 이상이었다. 만족감을 높여준 곳 중 하나가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재래시장에서 맛본 연잎밥이다. 해설사가 추천해준 몇 가지 음식 중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식당의 간판 메뉴였다. 양산을 써도 바깥의 한여름 별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오전 일정 끝에 마주한 데다 찬거리까지 정성이 느껴져서 그 소도시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다.

여름날의 기억이 떠오른 건 이즈음 축제 음식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다. 축제장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근래엔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퍼지면서 한순간에 이미지가 추락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국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를 발표하면서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 주민 평가 결과와 바

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2월에 축제장 바가지요금 발생 시 예산 보조를 폐널티 등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 계획을 내놨다.

이상 기후로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축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젊은 층이 줄어드는 마을에선 운영 인력마저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연례행사처럼 치러지고 있다. 과연 그 계절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개의 축제장에 빠지지 않은 음식부스를 보면 불편한 마음이 적지 않다. 꼭 그 축제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마을 자생 단체에서 수익 사업을 명분으로 파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축제명을 살려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했는데도 정작 행사 기간엔 연계가 안 되는 사례도 봤다. 인근 가게로 이끌어도 좋을 듯하는데 애써 축제장 안에 음식 판매용 천막을 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문체부에서는 글로벌축제까지 지정하며 ‘K컬처 종합 체험장’으로 잘되는 문화관광축제를 키우고 있다. 제주에서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축제들이 때마다 불거지는 ‘예산 낭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하고 드러내기 위해 축제를 시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축제는 방문자들에게 문턱이 낮은 행사여서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이들이 한마디씩 거든다. 자칫하면 배가 상으로 가는 형국이 되지만 상식은 통해야 하지 않겠다. 꽃구경 잔치를 벌였다면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도록 판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열린마당

오늘 하루 얼마나 친절하셨나요?



양 준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누군가 “오늘 하루는 얼마나 친절하셨나요?”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타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할 사람이 되고자 다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3년 전 ‘나는 친절한 공무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 “너무 사무적이다”,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돌아보게 됐다. 나 자신을 돌보거나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분이 곧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닌 형식적인 친절로 민원인을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도 친절할 사람이 되자’로 바뀌게 됐다.

자신에게 친절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과 나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할 하루였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전농로벚꽃축제, ‘지정축제 탈락’ 계기로 쇠신을



고 상운 한라일보 독자

제주의 봄을 상징하는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펼쳐질 이번 축제는 화려한 꽃터널 아래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올해 전농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마냥 설레지만은 않는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결과에서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탈락했다는 뼈아픈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도심형 축제가 우수 축제 명단에서 제외된 결정적 원인은 지난해 불거졌던 ‘바가지요

금 논란’이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 축제의 오점을 넘어, 가뜰이나 고물가 논란으로 위축된 제주 관광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축제는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자 공동체의 활력소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전농로 축제는 정체성 있는 콘텐츠보다는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상업적 운영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지정축제 탈락은 그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투명하게 직시하고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다.

다행히 이번 축제 추진위원회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가격 정찰제와 운영 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농로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들이 다시금 애정을 갖고 찾을 수 있는 ‘도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합리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6, listing various citr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포트묘목 분양' (Citrus Sapling Distribution), listing different types of citrus sapl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강정종묘 종남농장' (Gangjeongmoo Jongsam Farm), listing citr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서귀포시정소식' (Seogwi City News), listing various events and contact information.